

파주염씨홈페이지
(<http://www.pajuyom.kr>)
에 오셔서 [전자족보-가승
보-책족보(예약) 신청]

坡州廉氏大宗會報



전국에 계시는 파주염씨 일가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되고 만사 형통을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는 그동안 15년 간이나 정간 되었던 대종회보 16호를 속간하였습니다.

대종회보는 전국방방곡곡에 살고 계시는 파주염씨의 생생한 소식과 고려중시조 이후 살아온 역사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소식지로서 계속하여 발간 지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매우 뜻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16호 대종회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가들에게 가가호호 배포 하였고, 지방은 지역 종친회 회장님들께서 염문 가정에 배포하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복잡다단하고 상

상 할 수 없는 발전으로 너무 바쁘게 세파에 휩쓸려 살다보니 조상님을 숭배하고 또 뿌리를 찾는 일은 뒤로 미루어지고, 한편으로는 조상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때론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가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반드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도 해 봅니다.

금년에도 파주염씨대종회보 17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빛낸 업적과 자랑스러운 원고들이 속속 많이 들어 왔습니다. 참으로 대견하고 뿌듯합니다.

고려 말 충경공제신중시조 이후 피바람 휘몰아치는 멸문참화滅門參禍에도 엄연히 살아났고, 숨어 살면서도 끈기 있게 살아온 염문의 불굴의 의지들이 집적되어 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 해 봅니다.

대종회보를 발간하면서

우리 가슴속에는 고려중시조 이후 700여년 벼슬에 나가기를 가지고 절차탁마切磋琢磨하면서 불사의 정신으로 숨어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포부와 정신을 계승하며 골골마다 각처에서 문중의 울타리 안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며, 다시 재기의 기회를 노리며 살아 이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내로라하는 지위도

얻고 공헌을 하여 염문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상승배祖上崇拜 후손육성後孫育成 종친화목宗親和睦이라는 지표가 우리

가 사는 기본이념이며 종친이 단결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정신은 계속 발전되고 대대로 이어 가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대종회에 당면현안 하나를 말씀 드리면 2014년부터 급변하는 전자화시대에 맞

추어 전자족보 사업을 대종회총회에서 결의하여 현재까지 5년 동안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자 족보 등록이 저조하여 8300여명만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는 전자족보 무용론, 홍보부족으로 아직도 잘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신청을 미루거나 소홀히 한 까닭으로 봅니다.

그래서 언제 까지 전자족보등록을 기한 없이 무한정 끌고 갈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어 2018년 9월말로 일단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등록된 상태에서 대동보를 근간으로 삼고 새로 올려 진 전자족보에 등재된 내용을 가지고 책자 족보를 만들어 배부하려고 합니다.

현재 책자족보발행 계약과 인쇄과정을 거쳐 금년 말까지는 신청된 주소지에 택배(착불)로 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조상승배 (祖上崇拜)
후손육성 (後孫育成)
종친화목 (宗親和睦)

앞으로 염씨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단일본의 자손으로 어느 곳 어디서나 만나면 돈독한 씨족의 정을 나누며 화목단결하여 대대손손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2019년에는 본관을 파주염씨로 정정하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대종회장 염문규 배상



중시조 충경공 염제신 초상화에 대한 내력



중시조 충경공 염제신의 초상화

염제신廉悌臣 (1304~1382)

고려국에서 좌정승 도원수 문하시중 곡성부원군으로 시호는 충경공이며 그 업적이 지대하여 공민왕이 공의 초상화를 그려 하사 하였다. 이 초상화는 보물 제1097호로 국립박물관에 현재 소장중이다.

1371년 고려국 공민왕(恭愍王)이 친히 공(公)의 초상(肖像)화를 그려 하사하니 위대한 공덕이 단청에 빛났도다” 이를 궁중의 내원당(內願堂)에 모셨으나 1392년 조선(朝鮮) 개국과 더불어 다른 사찰로 옮기는 과정에서 분실되었다. (목은문고 牧隱文庫)의 “염제신비명(廉悌臣 碑銘) 이후 9세손 금재 현감공(錦齋縣監公) 주(亩)가 충경공의 유상을 되찾는데는 하늘의 도움이 있었다. 금재공이 경차관(敬差官) 시절 어느 날 경기도 광주땅을 지나던 중 갑자기 소낙비를 만나 비를 피하려고 근처에 있는 암자에 들어갔다가 스님 한분을 만났다. 수인사 끝에 금재공이 염(廉)가 성을 쓴다고 하자 스님은 부처님의 도움으로 충경공의 유상 모실 자손을 만나서 반갑다며 보관하고 있던 유상을 내주었다.

그 유상은 원래 원찰(願刹)에 모셔져 있었으나 이성계의 역성혁명 후에 다른 사찰로 옮겨가던 중에 국파공(菊坡公)께서 그 암자에 모셔두었는데 그 사실이 후손에게 전해 지지 않아 분실한 것으로 된 것.
공은 유상을 봉심(奉審)하고 백금으로 보은한뒤 모셔와 나주(羅州)에 금강사원(錦江書院)을 건립하여 유상을 봉안(奉安)하고 매년 봄, 가을에 예(禮)를 갖추어 행사(行祀)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숭조(崇祖)사상과 효행(孝行)이 뛰어난 10세손 금포공(錦圃公) 희(喜)가 전란을 피해 유상을 집안에 봉안하여 목숨을 걸고 지극 정성으로 모셔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였다. 그후 나주(羅州) 금강사(錦江祠)에 봉안하였으나 또다시 행방이 묘연하

던 중 1905년 보성군 문덕면 양동의 후손들이 발견하여 청계영당에 봉안하였다. 1950년 6·25 사변전란 중에 훼손이나 도난을 우려한 보성종문화회(문중) 도유사 20세손 정원(丁源)이 초상화를 자신의 집안 은밀한 장소에 봉안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허용하지 아니하다가 1985년 파주염씨 광주종문화회 길섭(吉燮) 홍섭(洪燮) 동원(東元) 남섭(南燮) 등에 계전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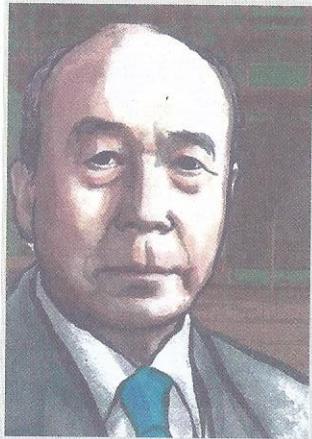
이후 후손들의 현로(賢勞)로 1991년 9월 30일 보물 제1097호로 지정되었고, 파주염씨 나주문 중 대표 홍섭(洪燮)의 명의(名義)로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에 기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8. 9

瑞田의 春秋 廉 錦 變

파주염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故)염영하 서울대 교수



염문의 위상을 높인 (고)염영하 서울대교수의 일대기 (1919.6.1.-1995.6.14.)를 파주염씨 회보에 심충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2018년 과학기술인으며, 명예 전당에 현정대상자로 통일신라의 김대성선현과 염영하 서울대 명예교수를 선정하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에서 발표하여 수상했다.

염영하 교수는 한국범종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였으며, 보신각종, 석굴암대종, 해인사종 등 8구의 범종과 독립기념과 종을 직접 제작해 전통기술을 복원하였고 “한국의 종” “한국의 범종 연구” 다수의 저서를 저술했다.

• 출생 : 1919년 6월 1일 함경남도 이원에서 출생하였으며, 중시조의 3남 청강공(염정수) 후손이며 24세손입니다. (대동보 6권 P713)

• 중2학년때 부친의 작고로 일본인의 가정교사로 학비를 벌어 학업을 이어갔고 전기·무기재료 금속공학으로 유명한 일본의 도후쿠제국대학 (東北帝國大學) 공학부 입학

• 기계공학을 전공한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였다. 자립해서 철공소를 하려고 기계학과로 전공을 바꾸었다.

• 1945년 경선공업전문학교, 경성대학 이공학부에서 2년간 강의 했고 1947년 삼화정공 주식회사에 입사 후 기술생산부장 기술자 양성, 소장 등 역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텁텁한 실무 능력을 익혔다.

• 1949년 3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전임강사부터 1984년 정년 퇴임까지 35년간 공작기계 금속재료 주조기계공작법 등 기계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에 연구와 교육에 힘썼다.

또한, 학생들에게 실용 교과목을 교육시켜 산업체에 배출했고 이들을 통해 우리나라 기계 제품들의 품질이 크게 향상 될 수 있었다.

중소 핵심 기업은 물론 방위산업체, 철도차량업체 등 수많은 기업에 기술지도 협동연구 자문 등을 수행하며 국

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 해방 후 나라의 공학기술이 미비했던 시절에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기계 재료 기술 분야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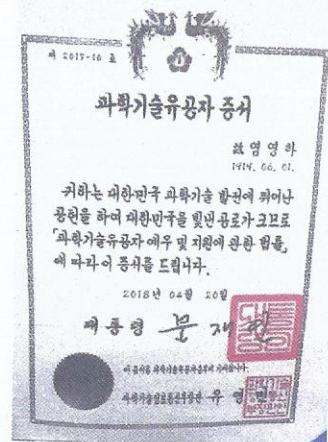
특히, 철강 재료들의 굽힘, 성형 등 가공기술과 관련된 기초 연구, 반복된 충격과 하중 강도에 따른 내구성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뛰어난 결과를 내며 두각을 나타냈는데 1995년부터 해외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초창기 재료강도학 수준을 크게 높였다.

• 그는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적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다.

1952년부터 1년간 영국 런던 대학교와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유학한 이유도 기계공학 신학문과 서양식 공학

교육과 연구 방법을 배워 국내 대학에 도입하기 위해서였다.

공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저술한(공작기계), (금속재료학) 등 많은 교과서는 최근까지도 명저로 평가되며 사용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한국의 문화유산 범종(梵鍾)에 대한 관심과 연구업적

금속 재료 및 제작 연구의 권위자로서 금속 악기 중 으뜸으로 꼽히는 범종(梵鍾)에 관심을 가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그는 1970년대 초 등산을 다니며 유명사찰의 범종(梵鍾)에 호기심을 느꼈다.



성덕대왕 선종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상원사종
<출처: 한국사전연구사 한국불교미술대전>

작은 종도 한 번 울리면 4km 까지 미치고 큰 종은 40km 안에서도 들을 수 있으며 어떤 한종소리는 한 번의 ‘엉~’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번 ‘엉~ 엉~ 엉~’이어지기도 한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별반 이루어 진게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연구에 나섰고 이후 20년간 전국의 산사를 빠짐없이 찾았으며 범종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현대 기계 산업에서 문화유산으로 과학 적탐구대상이 바뀐 것이다. 몸과 마음 모두 고생이었지만 종 연구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당시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종속돼 있었기 때문

에 국가의 부를 창출 할 수 있는 연구에만 투자가 집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적지 않은 사재를 털어 넣기도 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 “내가 좋아서 한 일이고 성과도 있었으니 아무런 후회도 없다”고 말했다.

• **범종**에 대한 호기심은 연구를 지속하게 한 촉매제였다. 그는 종의 아름다움에 빠져 독보적인 연구를 하여 왔었다. 1984년 8월 말 서울대를 정년 퇴임한 뒤에도 줄곧 연구실에 출근, 하루 8시간씩 종 연구에 매달려온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의욕을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 문화재인 성덕대왕 신종(일명 봉덕

사종 또는, 에밀레종)과 상원사종 등 신라시대의 종은 물론 고려시대의 종, 조선시대의 종의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종이 서양 종, 중국 종, 일본 종에 비해 예술적, 과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종임을 입증했다.

• **이처럼 우수한** 우리의 종이 고려 말 중국 종의 영향으로 전통 음과미가 훼손된 것, 그리고 조선시대 불교가 국가의 배척을 받게 되면서 걸작품의 맥과 기술이 끊기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 **이런 이유에서** 종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했다. 1991년까지 범종 연구에 관한 논문 및 연구 보고 52편을 저술하였고, 그 후에도 한국범종연구회 회장을 장기간 역임하면서 범종 연구의 기틀을 다졌다. 같은 해 자신의 연구를 집대성한 (한국의 종)과 (한국 종 연구)등 다수의 명저를 출판하여 한국 범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 한국 범종에 대한 답사와 과학적 연구만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의 설계, 제작 및 종팔 감리를 하여 수많은 국내의 대종들을 주조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보신각 새 종, 석굴암 대종, 해인사종 등 8구의 범종과 독립기념과 통일의 종을 직접

제작 지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 기술을 복원하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한디자이너이며 제작자였다.

• 1995년 6월 14일 한국 범종 답사 출장 중 별세했다. 종의 신비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의 마지막도 종과 함께였다. 50여년 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故 염영하 교수

그는 우리 조상의 과학기술과 독창적 예술성이 담긴 한국 범종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자랑스러운 한국의 과학자였다. 과학기술 유공자라는 이름표가 추가된 지금 그의 업적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은은한 종소리의 잔향처럼 그가 걸어온 발자취 역시 우리 곁에서 조용히 빛날 것이다. 국립과천 과학관에 설치된 과학 기술인 명예의 전당에서 세종대왕, 장영실, 혀준, 우장춘 등 31인과 신라시대 김태성, 염영하 추가로 33인이 현정되었다. 실로 염문에 자랑이며 업적이다.

☆자료제공:(고) 염영하 아들
염장철 명지대 전교수

☆편집: 대종회장

☆홈페이지:kast.or.kr/HAL

경기도 시흥 도창(道倉) 종친회의 역사와 사업

콩대를 태워서 콩을
삶으니(煮豆燃豆基:
자두연두기)

가마솥 속에 콩이 우
는구나(豆在釜中泣:
두재부중읍)

본래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건만(本是同根
生:본시동근생)

어찌 이다지도 지독하
게 볶아대는가(相煎
何太急:상전하태급)

위의 詩는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 조조(曹操)의 아들 曹植(조식)이 형 曹조(조비)의 왕권쟁취시 사경에서 위기를 모면할 칠보지시(七步之詩)로 ‘뿌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시사(示唆)하는 바 크다고 생각된다. 지금부터 경기도 시흥시 도창종친회(京幾道 始興市 道倉宗親會)의 적지만 보람찬 짧은 역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도창종친회 선조는 284년 전(서기 1743년) 조선조 영조대왕시대 탄생하신 국파공파 15세손 중겸(仲謙)

3차로 도창의 산 48번지에 모신 17세 성백선조님, 18세 재황선조님의 시제에 석양무렵까지 참여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와 같이 선영이 세 곳에 분산 되어 있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창리에도 산업화 바람이 불어 공장이 들어서고 집성촌이 해체되는 등 급격한 변화의 영향을 받아 도창 종친회도 이에 발맞추어 변모하였다. 먼저 1975년 1월 25일 처음으로 제정된 「종친회 규약」을 1984년 2월 5일 개정하여 선영의 시제관리, 종중재산관리, 친목도모 등 제반사항을 「종친회회칙」으로 명문화하여 성문법(成文法)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친회가 시작한
• 첫번째 사업은 그동안 종
친 각 개인의 차명(借名)으
로 되어 있어 문제가 많았던
종중재산(宗中財產)을 종친
회 문중소유재산(門中所有
財產)으로 바꾸는 사업을 총
회의결을 거쳐 종친회 명의
로 등기를 완료하였으니 이

시제묘역은 오랜 동안 자연 풍화로 변모하였고 진입로, 계단등도 훼손이 심하였다. 때마침 2012년이 윤달(閏月)이 든 해여서 ‘손이 없다’는 관습에 따라 윤 3월 달에 묘역을 정비하기로 의결하고 세 곳에 있는 도합 12기 묘역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각 묘묘는 3단 대리석으로 치장하고 상석, 비석, 문인석 등을 격조 있게 배열 했으며 축대 계단도 보수 미화하게 되었다.

• 세번째 숙원사업은 종친회관을 건립하여 사당(祠堂)에 위패(位牌)를 모시는 일이다. 그동안 모임이 있을 때마다 회관이 없어 불편이 많았었는데 마침 종친회 소유 적당한 토지가 있어 이곳이 근린시설(近隣施設)로 회관건립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4년 4월 회관신축(안)을 토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해 6월 종친회관 건립을 의결한 후 설계시공회사 선정 등을 투명하게 공모하여 건설회사를 선정하였다. 충분한 준비기간

비 조달을 위하여 선임대하였고 3층은 사당, 제실로 설계하여 3층 맞은편 정면은 위패를 모실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 제일 상단에 도창종친회 선조이신 15세 중겸(仲謙) 선조를 모시고 그 아래 1단에 16세, 2단에 17세, 3단에 18세, 4단에 19세 선조님의 위패를 포함하여 도합 15위의 위패를 대리석 오석(大里石吳石)으로 조각하여 엄중하게 모셨고, 2015년도 시제(음력 10월 15일) 때부터 이곳 사당에서 시제 행사와 총회모임이 이루어져 종친회가 한층 활성화 되었다.

끝으로

• 네 번째 추진한 사업은 대종회가 주관하는 대동보발행에 대하여 종친회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986년도 대동보발행 후 30년만에 간행되는 대동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 회원이 관심을 갖고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회의시마다 홍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문지식이 있

신의 준비속은 물론, 본인 위치와 촌수까지 확인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아울러 수단작성비용, 대동보구입비용도 종친회 경비로 전액지원 토록하여 대종회 사업에 힘을 보태고자 한바 있다.

이상 道倉宗親會의 짧은 역사와 추진할 사업을 말씀드렸거나와 앞으로 후발지역 종친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문중 어르신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2018. 10.



道倉宗親會長 廉在善
(前世明大學敎總長)

선조님으로부터 시작되어 2018년 7월1일 현재 족보등록자수 총331명으로 변성해왔다.

나는 어려서부터 조부님을 따라 집성촌 도창리에서 삼십리 정도 떨어져 있는 안산 월피리에 모신 15세 중겸선조님의 시제에 참여했고 이어서 2차로 도창리 3번지에 모신 16세 세래 선조님등 다섯분의 시제에 참여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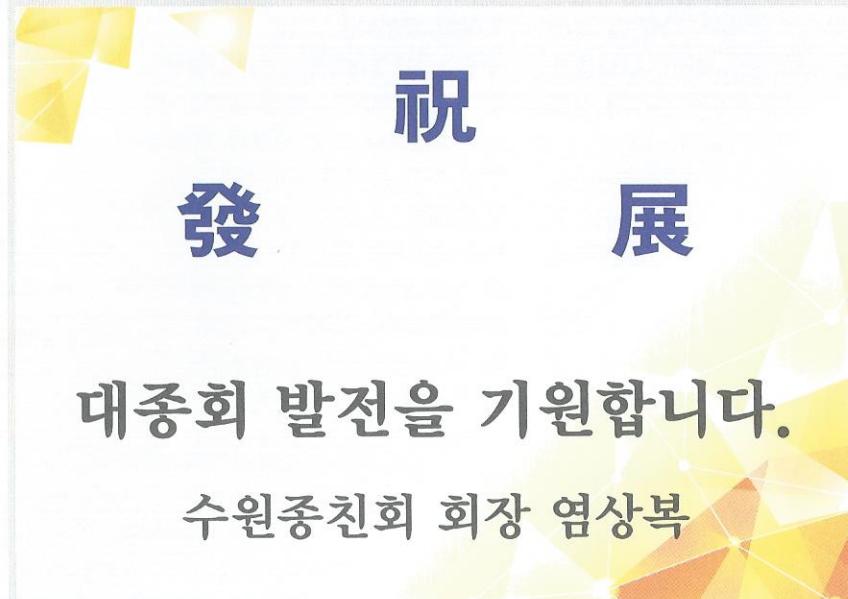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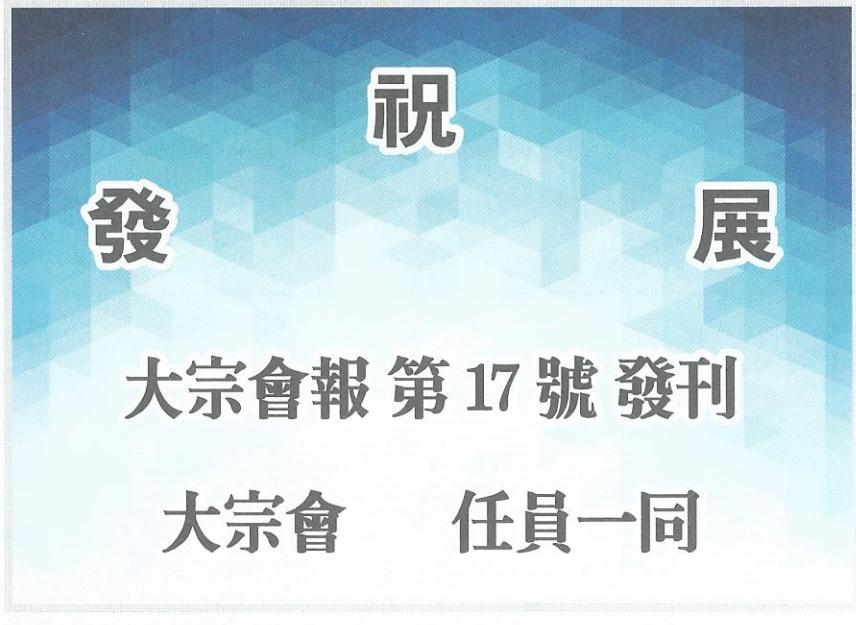
것이 종친회가 성공적으로 이룩한 최초의 성과물이었다. 그 결과 각 지역에 산재되어 종친 각개인의 차명소유였던 총20,783평의 토지재산(土地財產)이 종친회 문중명의로 소유권이 확보되어 문중의 소지를 없앤 것이다.

• **두번째** 사업은 세 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시제 묘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을 거쳐 2015년 4월25일 회관 착공식을 하고 5월24일 상량식(上樑式)을 거쳐 9월5일 드디어 준공식을 하게 되었는데 총 건설개요는 대지 464m² 건물 철조콘크리트라멘조로 3층인데 1층.2층은 각 200m²이고 3층은 147m²로 도합 547m² 의 작지만 보배 같은 종친회 회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종친회관의 1층과 2층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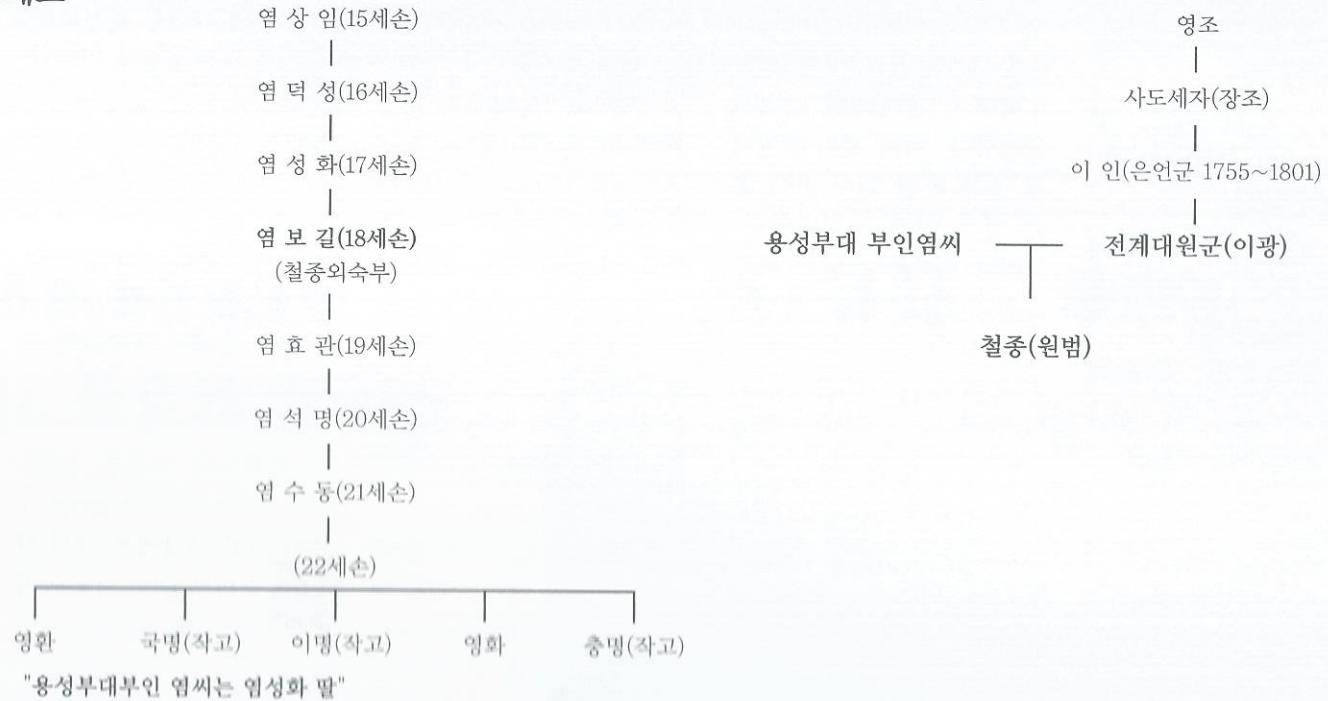
는 전담회원을 위촉하여 장기간에 거쳐 각 세대별 수단을 작성지도하고 이를 취합정리하여 도창 종친회원의 전자족보등록은 총220명, 세대별 족보등록은 도합331명으로 최종 집계하여 대종회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회원 331명을 세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배치도를 작성하여 사당 좌측 백면에 게시하여 누구나 자



강화사단연혁

철종과 염보길의 가계도



염보길의 집 (문화재 자료 제8호)

철종과 외숙부 염보길

◆ 철종(이원범)

철종이 강화도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게 된 것은 조부 은언군(이인1955~1801)에서 비롯된 것이다.

은언군은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장현세자 : 장조)와 숙빈 임씨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1786년 상계군 (이당)을 독살 사건에 연루되어 대신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정조가 강화도로 유배 시켰다.

은언군과 둘째 부인인 전산군 부인이씨 사이에서 태어난 전계대원군 (이광)이 철종의 생부다.

전계 대원군과 계실인 용성부 대부인 염씨 사이에서 태어난 덕원군 원범이 철종이다.

◆ 염보길(철종의 외숙부)

염보길(廉輔吉)은 중시조 염제신의 차남인 동정공 염흥방(廉興邦)계열로 아버지는 염

성화(17세손)이며 염보길은 (18세손) 철종의 생모 용성부 대부인인 염씨와는 남매지간이다. 동정공께서 무진지화의 난으로 숙청 당해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용담리로 피신하였는데 철종외가 염씨를 용담염씨라고 한 것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파주는 봉성(奉城). 서원(瑞原). 파평(坡平). 원평(原平)으로 불렸으나 조선 세조때 파주로 처음 붙여진 지명이다. 염성(廉性) 4세손 경기 연천 거주 10세손 염웅렬이 강화로 이주 한 것으로 보인다. 염상임(廉尙任) 15세손은 철종의 외고조부 염덕석(廉德碩)의 외증조부 염성화(廉聲華) 외조부의 묘는 문화재 자료 제8호 좌측 산 아래조성 되 있다.

문화재자료 제8호

1853년 강화수유 정기세(鄭基世)에게 명하여 건립하였다고 하나 1859년 철종외가에 대한 작위가 추종됨. 철종즉위 10년 후인 1859년에 외가묘역에 대한 정화사업을 시행한 후 1860년에 건립된 살림집으로 염보길이 살았던 집이다. 1983년 9월19일 경기도 문화재 자료 32호지 1995년 3월1일 인천광역시에 편입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호로 다시 지정되었다.

※ 최근보수공사

- 보수범위

지붕보수

기둥, 마루, 인방 교체 보수

기존창도 재설치

담장보수

화재감지기 CCTV 전기설비

- 사업비 : 1억 7천 8백만원

- 설계시공 : 춘추건축 동원건설

- 공사기간 : 2012. 5 ~ 9

- 근거자료 : 철종외가 정비공사 수리보고서

• 자료 : 철종외가 정밀 실측 조사 보고서

• 감독기관 : 인천광역시 조사총괄책임 반우형 (티움건축사무소대표)



강화사단 정비사업

염보길선조님의 가계도에서 알 수 있듯이 1987년 6월 29일 체결된 계약서는 염국명(22세손 작고) 와 파주염씨 제4대 대종회장 염태훈은 철종외가의 문화유적지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또한, 철종외가 묘의 관리와 시제를 실행한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1987년 6월 29일 신탁등기이

며 수탁자는 파주염씨대종회로 되어 있습니다.

대종회에서는 선원면 냉정리 262-9전(883평)에 중시조이신 충경공 1세조 선조님과 그 아드님이신 2세조(국파공, 동정공, 청강공) 사단이래서 '양세사단'이라고도 한다.

실묘(實墓)가 이북에 있는 관계로 해마다 제대로 제향을 받들 수가 없는 안타

까움에 후손들이 뜻을 모아 1987.11.22 개막식을 거행하였다.

현재의 강화에 사단을 설립하게 된 것은 이 위치가 이분들께서 고려시대에 활약하고 사시던 개성과 가깝고 묘소가 있는 장단군과도 멀지 않고, 조선시대의 '강화도령'으로 유명한 '철종임금'의 외가가 있는 곳인데 그 후손께서 사

단을 만들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이곳에 설립하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매년 4월초 시재를 거행하였으며 수도권(서울, 인천, 수원, 안양) 등에 거주하신 일가분이 참여 전국각지에 지역 종친회장과 집행부 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1년이 지난 현재는 잔디가 없고 잡풀이 우거져 매년 관

리에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2018년 4월 시재일 대종회 명예회장님 "기봉님께서 2 천만원을 현성하셔서 둘레석 (12자)과 잔디를 심고 사단을 정비 완료 하였다.

2018. 5. 31

※ 정비내역

구 분	세부사항	단 가	금 액	비 고
둘 레 석	12자 4기	2,200,000	8,800,000	
잔 디	400평	8,050	3,220,000	함평에서 직송운반비포함
인 건 비	석재. 잔디	150,000 ~ 200,000	2,650,000	3일
포 크 레 인	4일		2,200,000	
식 대			550,000	간식비
숙 박 비			200,000	
기 타			300,000	가설물
계			17,920,000	



둘레석으로 정비 후 모습

강화 시제와 관리

매년 4월 둘째주 토요일 11시에

수도권에 살고계신 염문과 지역종친회장과 집행부임원님들께서는

중시조와2세조(국파공,동정공,청강공)의 시제 년례 행사를 대종회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종회에서는 매년 잔디를 보강해서 명실상부한 파주염씨 강화사단을 영구히 보존하여야겠습니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한번이라도 시향에 참석하여 후손들(아들,손자)에게 선조님들의 숭고한

역사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여야겠습니다.

2018.10

대종회제공



염태영 수원시장(59세)은 파주염씨 국파공파 24세손으로, 1960년 수원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서울대 농대) 모두 수원에서 학교를 졸업하며 성장했다.

"수원에서 나서 살면서 단 한번 도 수원을 떠나본 적 없다"는 그를 만나 민선 7기 수원시장으로서의 포부와 전망을 들어봤다. 먼저, 수원시 최초 3선시장으로 당선된 것에 따른 소감을 물었다. 그는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강조했다.

"지난 8년간 문구만 화려한 정책보다는 실제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찾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며 "속이 꽉찬 모습으로, 수원시민들과의 '약속'을 책임을 갖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지난 3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약의 목표와 철학, 비전과 과정 등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2018매니

페스토 지방선거부분 약속대상'에서 '선거 공약서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의 소신이 행동과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염 시장은 '준비된 후보'라는 평가답게 선거운동 기간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의 핵심공약 중 최우선순위는 '수원 특례시'의 법제화다. 수원은 인구수가 광역시를 추월한 '광역급 대도시'이지만, 광역도시가 아닌 일반 시(기초자치단체)다.

그는 "인구 125만 대도시인 수원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로 교통, 환경, 문화체육, 복지 등 시의 전 분야에서 시민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였음에도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행정과 재정의 심각한 비효율은 물론 원활한 시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례시 실현을 통해 새로운 지방정부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그의 바람대로 수원특례시 구현으로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분권의 전도사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3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치분권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 운동 전개, 이달 12일 창원에서 '특례시추진 공동기획단'이 출범하는 등 자치분권개단이 출범하는 등 자치분권개헌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자치분권개헌의 불씨를 되살리고 개헌의 동력을 모으기 위해 전국 거점 도시를 순회하며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전국 대장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염 시장은, "4년 동안 수원시장 염태영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수원시의 달라진 위상만큼 나의 역할이나 주어진 임무가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며,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끌기 위해 전국적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염 시장은, "4년 동안 수원시장 염태영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분권형 지방정부의 표준을 수원이 만들어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현재 염 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2020년 6월까지 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선거에도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선6기에서 좌절된 제국무회의 신설

등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의 실현을 위해, 민선7기 전국 226개 지방정부가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의 불씨를 되살려 전국 확산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여름 염 시장은 '반바지시장'으로 전국적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다. 더위로 지친공무원이 익명 신문고에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 이 계기가 되었다.

염 시장은 지난달 3일부터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파격을 보였고, 1회성이 아닌 8월 중순 이후까지 반바지를 입고 업무를 했다.

그는 "직원들을 위해 시장부터 바꿔입겠다. 내가 먼저 반바지를 입어야 직원들이 편하게 입지 않겠느냐"며 "옷차림의 변화로 사회적 편견을 하나 없애 보는 건 어떨까요?" 라며 하절기 반바지 입기 운동을 전개했다.

그에게는 항상 '따뜻한 혁신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반바지 행정'도 한결같은 그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염 시장은 민선7기 수원시장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말한다.

"지금까지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항상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4년 후 어떤 길이 열릴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시대적 부름과 운명적으로 만나 나에게 역할을 요구한다면 그것에 따를 것입니다."

파주염씨 국파공파 24세손 염태영 수원시장의 앞날이 기대된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 매산초등학교, 수성중·고교, 서울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삼성 등 대기업에 다니다가 사표를 던지고 환경운동을 시작하며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를 지냈다.

2010년 민선 5기 수원시장에 당선되어 현재 민선 7기 수원시장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최초 3선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수원시 율전동 염가의 자랑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은 우리 선조들이 3백여 년 전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율전동은 이제 도시와 다름 없는 모습이지만 50여년 전만해도 수원의 외곽농촌이었다. 경부선 철로가 마을을 관통하였고 70년대 말에 수원 인천간 산업도로가 놓이면서 교통이 편리하게 되었다. 게다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가 수도권전철 1호선 성대앞역 설치 등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율전동(栗田洞)이라는 이름보다 '밤밭'이라는 소박한 이름이 더 정

겹고 쉽게 통하던 시절이었는 데 마을을 관통하는 철도로 인해 윗밤밭과 아랫밤밭으로 크게 나뉘었다.

우리 염가들이 터전을 일군 아랫밤밭은 한적한 시골이었다. 신검공의 후손들이 모여 살면서 북실공파와 북석공파가 사이좋게 살아온 마을이 율전동의 아랫밤밭이다. 마을을 변화시킨 힘은 여럿이지만 그중에 나의 아버지 역할이 아주 컸다. 아버지는 구장으로서 또 이장으로서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 갔다.

마을에 밤밭두부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함은 물론이고, 이웃 마을 중에서 가장 먼저 시내버스를 운행하도록 한것도, 새마을 운동에 앞장을 서신 것도 아버지였다. 2013년 97세의 연세로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아직도 우리 형제와 마을사람들 뇌리에 깊게 각인 되었다. 그 이름 염규택(1917~2013) 마을의 발전을 이끌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종재를 잘 지켜 지금도 탄탄한 종종이 되게 시금석을 놓

으신 분이다.

무려50여 년 동안 북석공파 종중회장을 역임하셨고, 전국대종회 회장도 1996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세 번이나 역임하셨다. 노인들에게 명절 때 마다 경로비와 제수비를 전달하고,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전해준다. 아버지가 다진 북석공파 종중의 단결력과 재력은 지금도 이어져서 염상복회장을 중심으로 염상옥 국장, 염상천 부장이 잘 이어간다. 우리 종인이 아니더라도 이웃돕기와 경로잔치등에 종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 환원을한다. 염상복 회장의 리더십과 포용력, 염상옥 국장의 꼼꼼하고도 치밀한 관리, 염상천 부장의 활발한 대외 활동 등 세 박자가 맞아 종종이 더 발전을 거듭한다. 나 또한 부회장으로서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가는데 한몫을 다하려고 한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장남인 나는 수원시청 지방서기관으로 공직을 마무리하였다.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내

뒤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생각으로 맡은 업무를 공정하게 하였다. 공직에서 은퇴하고 노년을 한가롭게 보낼 즈음 2011년 수원문화원장이 되어 수원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수장이고, 2013년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회장이 되어 더욱 바쁘게 봉사하는 삶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내게는 조카뻘이지만 항상 우리 아버지를 큰 어른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아왔다.

우리 밤밭 염가의 가장 큰 자랑은 염태영 수원시장이다. 아버지가 늘 강조하신 '청렴'을 수원의 공직 사회에 뿐리 내린 것도 3선 고지를 점한 염 시장의 크나큰 업적이다. 염상천, 염상훈 전 부의장, 염규종 조합장, 염상균 위원장 제 6대 수원시의회 염상천 전 부의장과 염상훈 제 10대 수원시의회 전 부의장은 형제간이다. 이렇게 형제가 부의장을 한 예도 드물 것이다.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은 새마을정신과 4H 정신으로 무장한, 수원의 대표적인 농민이다.

농가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활동으로 빛을 드러내니 조합장 선거에 나가 두 번 연속 당선되었다. 염상균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장을 수원의향토사학을 발전시키는 일에 매진한다.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위원회 부위원장은 4년 역임하기도 하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북석공파이고 염상훈, 염상천 전부의장 형제, 염규종 조합장과 염상균 위원장은 다 북실공파이다. 우리 밤밭 염가의 자랑거리중 또 하나가 북실공파나 북석공파 가리지 않는 점이다. 그냥 할아버지요. 아저씨고 형님 동생이면서 조카들이다. 이 장점을 잘 살려서 종종 전체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2018.10

수원문화원장 염상덕



大轉民國人의 뿌리坡州廉氏

대전시 뿌리공원에 건립된 조각



작품명 : 기원(祈願)

조각가 : 김희상

文館) 대제학으로 고려국에서 가문의 중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1392년 역성 혁명(易姓革命)으로 조선국이 개국하자 염문의 후손들은 충신불사이군으로 은둔생활로 이어졌지만 임진왜란때 창의(倡義)하여 공을 세운 휘 걸(傑)휘서(瑞), 휘 홍립(弘立), 휘 말경(末卿), 휘 언상(彦祥)장군은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록되어 있고 한말(韓末)항일투쟁에 몸바친 휘 온동(溫東)열사도 우리 염문의 후손이며 한국 사실주의 문단에 찬란한 금자탑을 쌓은 횡보(橫步) 휘 상섭(想涉)도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선조님들의 역사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그뜻을 후손들은 이어 살아가는 목표를 바르게 하고 의지를 굳게 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수있는 지혜와 노력을 다하자.

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전국에는 5,582개 성씨(3만 6,744 본관)가 있다.

우리 파주염씨 유래비는 그중 70번째로 금강 상류 유등천물이 휘돌아 내려가는 뿌리공원 명당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1977년도 한밭회(파주염씨 청년회)에서 발의하여 추진위원장 염문규, 염진열이사, 염완배 총무로 구성되어 성금 모으기를 출발하였으나 IMF가 터지는 등 처음부터 막막한 자금 난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위원장님 이하 임원들이 동분서주 호소하여 어렵게 완공하게 되었다.

현재는 대전종친회에서 매년 뿌리공원축제 행사에 참석하고 있으나 참석 인원이 적고 대전종친회 운영자금도 넉넉지 못해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는 현

공원의 조성목적에 이바지하고 문중의 단합과 친화 교류하여 문중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기리고 배우며 각종 행사에 주관 및 참여하여 문중문화의 선양을 빛내고 알려야 할 것입니다

2018. 8

대전종친회 총무 염 완 배

◆ 작품설명

상단의 원은 미래를 상징하는 태양이자 희망이며, 또한 시조 염형명廉刑明을 구심점으로 표현하였고 암석안의 형상은 중시조곡성부원군(曲城符院君) 시충경공(忠敬公) 매현(梅軒) 염제신(廉第臣)과 세아드님국파공, 동정공, 청강공)의 빛나는 업적과 후손들의 무궁한 번영, 미래에 대한 희망의 결정체이다.

◆연원

파주염씨는 삼한공신(三韓功臣)이고 대사도(大司徒)벼슬을 한 염형명(廉邢命)이 시조이시고 관향은 파주(坡州)이고 단일본이다. 고려국 개국공신인 휘(韓) 상(相)과 재상(宰相)을 역임한 휘 현(顯)봉성태사까지 오

르신 시(諡) 효문공(孝文公) 휘신약(信若), 도첨의중찬(都僉議中贊)을 지내 신시충정공(忠靖公)휘승익(承益) 그리고 좌우정승과 문하시중을 지내신 곡성부원군(曲城府院君)시충경공(忠敬公)매현 염제신은 중시조이고 명문거족으로 염문의 위상을 높이셨다. 공민왕이 친히 그린 충경공의 초상화는 보물 1097호로 지정되어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충경공의 세분 아드님은 국파공(菊坡公)휘국보(國寶)는 서성군(瑞城君)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동정공(東亭公) 휘홍방(興邦)은 서성군 성균관 대사성(大司成) 예문관 대제학 청강공(淸江公) 휘 정수(廷秀)도 사헌부(司憲) 대사헌(大司憲) 우문관(右府) 대사헌(大司憲) 우문관(右

1999. 5. 29
파주염씨 대전종친회

배경 및 경과

대전 도심의 외곽 야트막한 야산에 244개 문중의 성씨(姓氏) 유래비가 모여 있다. (대전. 중구. 침산동 유동천변)뿌리공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효(孝)와 성씨(姓氏)를 주제로 조성된 테마 공원이다.

최근에는 연간 100여명만이 찾는 뿌리공원은 조명까지 설치해 전국 명소로 부상했다.

강변 산책코스와 각 문중의 조형물을 탐방하며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는 문중 산책코스로 모든 세대의 관람객에서 인

실입니다.

뿌리공원은 우리 최초의 유일한 뿌리(姓氏)와 조상 나를 알게 되고 위대한 조상의 넋과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찾아 알고 지내며 나를 비롯하여 후대 손에 펼쳐야 할 한 마당과 다른 문중과 교류하면서 배우고 익혀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장소이며 우리 전통문화의 핵심인 효 문화를 활성화하는 곳입니다.

우리 파주염문중도 대전종친만 참석하니 빈약한 모습으로 뿌리와 책임감이 결여되고 씨족 및 문중 애착심 결여로 퇴색되어 감에 파주염문도 대종회 참석함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중을 대표하여 뿌리



祝展
大宗會報 第17號 發刊
同和運輸(株) 代表理事 廉文圭

NEXIA
INTERNATIONAL
三德會計法人
회계감사
법인 및 개인세무상담
조세불복
공인회계사
염인선
Mobile. 010-9401-9788
E-mail. isyace@naver.com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8 S&S빌딩 14층

성(姓)과 본(本) 이야기

내가 어렸을 적 살던 고향 마을은 옆 마을까지 합쳐서 100호가 넘는 진주정(鄭)씨의 집 성촌이었다. 정씨네들끼리 형님 동생, 아저씨 조카, 큰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하는 식으로 얹혀 사는 소위 자자일촌(子子一村)이었던 것이다. 타 성인 우리 집안은 단 세집 뿐이었기 때문에 친척이랄 사람이 거의 없고 어린애들 사이에서는 왕따가 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우리 형제자매들은 하나같이 염소라는 들키 싫은 별명을 달고 살았다. 아이들 간에 싸움이라도 벌어질 때면 정씨네 아이들은 지원세력이 많은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 정씨 아이들을 당해낼 도리가 없어서 억울하기 일쑤였고 그래서 나는 가끔 우리 집은 왜 하필 염씨인가 하는 불만을 가지곤 하였다.

우리 파주염씨의 인구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일 본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는 본관을 파주로 쓰지 않는 염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주염씨는 고려말인 서기 1388년 무진지화(戊辰之禍) 이후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전국 각지로 흘어져 숨어 살던 중 일부 후손들이 이 각기 살던 고장을 본관으로 삼아서 다른 명칭의 본관들이 생겨났었지만, 염씨는 모두가 시조 형명(邢明)과 중흥조 제신(悌臣)을 축으로 하는 파주단일본이다.

왜 김, 이, 박씨가 많은가?

2015년 통계상 우리나라의 김씨는 1,069만명으로, 총인구 5,107만명의 21.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1명이 김(金)씨인 것이다. 세계 각국 중 어느나라도 한 개의 성씨가 20%를 넘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에 김, 이, 박씨가 왜 이렇게 많은가?

부럽기만 한 일은 아닌 것이다.

성을 같(바꿀) 수 있는가. 과거 우리 민법은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제781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었다. 그 후 2008.1.1.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동 규정을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바꾸어서 부모가 협의해서 자식에게 어머니의 성을 갖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성과 본을 바꿀 수는 없어도 내 자식이 태어날 때 성씨를 다른 성씨로 바꿔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성(父姓)주의가 남녀평등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부모성 함께쓰기를 법제화 하자고 주장

이 결혼 후에도 자신의 성씨를 유지하는 점이다.

근래에까지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가 있었으니 그것이 동성동본 금혼제도이다. 고려시대까지는 동성동본간의 결혼금지와 같은 개념이 없었으나 조선시대 이후 동성동본간의 결혼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이러한 원칙은 2008.1.1. 개정 민법 시행시까지 지속되었다. 동성동본간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사실혼관계로 살아야 했고 태어난 자녀들은 취학도 떳떳하게 할 수가 없었다. 예컨대 김해 김씨가 우리나라에 400만명이 넘는데 그들 사이에는 혼인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다만 1978년, 1988년, 1996년에 각각 1년동안 “혼인에관한특별법”을 시행하여 그 기간 중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법적인 구제를 해 주었다. 그 후 민법 개정으로 동성

류씨는 유로, 라씨는 나로 표기하여 온 것인데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7년 대법원 예규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을 개정함으로써 한자 성의 한글 표기와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씨 표기에 “ㄴ” 또는 “ㅇ”이 아닌 “ㄹ”로 변경할 수 있고 출생신고시에도 그와 같이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도 “염”이 아닌 “령”으로 쓸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명을 쓸 때 서양과 반대로 성씨를 앞에 쓰고 이름을 뒤에 쓴다. 나 개인보다는 나의 뿌리인 성씨와 가문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김, 이, 박씨가 많다고 해서 부러워 할 일도 아니고 숫자가 적은 파주염씨로 태어났다고 해서 서운해 할 일도 아니다. 전국에 흘어져 살고 있는 6만 9천명 모두가 일가친척이라는

1960년도 조사에서는 인구 3만 2,557명으로 62위였고, 1985년도 조사에서는 인구 5만 4,533명으로 62위, 2000년도 조사에서는 인구 6만 3,951명으로 62위였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도 조사에서는 (호별방문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에 한번씩 실시) 인구 6만 9,387명으로 61위이다. 2000년도나 최근이나 인구가 비슷한 것이다.

그런데 위의 염씨 인구 중에는 파주염씨가 5만 7,531명, 용답염씨가 2,715명, 파평염씨가 5,515명, 기타가 3,626명이고 그 중 파주염씨만 순위를 따지면 130위가 된다. 우리가 단

우리나라의 성씨의 역사를 보면 조선초기까지만 해도 성씨는 양반의 전유물이었고 양반은 10%에 불과했다. 그 후 평민들도 성씨를 갖게 되었으나 천민, 노비들은 성씨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가 1909년 일제가 수탈의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 노비를 양민화하게 되었고 민적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성씨가 없는 천민, 노비들에게도 성씨를 갖게 하였는데 이 때 성씨가 없던 천민, 노비들이 당시 인기있던 양반 성씨인 김, 이, 박씨를 대거 택하여 등록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연을 알고 보면 김, 이, 박씨가 많은 것이 결코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부모의 성을 함께 쓰는 사람들 이 있는데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을 앞에 쓰고 어머니의 성씨는 이름자의 첫글자로 성명을 등록하게 된다. 남녀평등이 이런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따지고 보면 어머니의 성씨도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씨 아닌가. 더욱이 부모성을 함께 쓴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성을 함께 쓰려고 하면 그 성명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지. 우리나라의 성씨 제도에서 오히려 남녀평등 정신이 외국의 유래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 여성

동본 금혼 원칙은 폐지되었지만 개정법에서도 8촌 이내의 혈족 등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근친혼은 금지하고 있다.

얼마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반가운 이름을 발견했다. 19세의 북한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렘대옥이다. 북한에서는 우리 廉(청렴할 렘)씨를 "렘"으로 적고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다.

남한에서도 성씨를 "렘"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한글맞춤법 상 두음법칙으로 인하여 한자의 첫소리가 "ㄹ"인 경우 "ㄴ" 또는 "ㅇ"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옹집의 정서 또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존안된 보물 1097호 충경공 할아버지의 초상화 앞에서 보라. 그리고 내가 이 분의 혈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보자. 만일 이 분이 없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숙명적 인연에 숙연해 질 것이다.

2018.9

염웅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수현사 (水絃祠)



수현사는 1873년 (고종10년) 처음 세웠는데 보령댐 건설로 1998년 현위치로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산 27번지)이전 한 것이다. 규모는 앞면 3칸 옆면 2칸이며 지붕은 옆에서 볼 때 사람인(人)자 모양을 한 맞배지붕으로 꾸며졌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보령종친회 염길영회장께서 현위치로 이전함에 헌신적인 희생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였다. (부지는 염인선(23세손) 희사) 수현사는 고려국에서 좌우정승과 문하시중을 지내신 중시조 충경공 염

제신(1304-1382) 곡성부원군과장자 국파공(국보)는 1355년 문과에 급제하고 예문관 대제학과 지춘추관사이며 서성군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입니다. 보령종친회장 염규현(보령한의원 원장)께서 매년 음9월4일 제례를 올린다. 또한, 문화재 자료 제142호로 1984년 5월 17일에 지정되었으며 충남보령시 관광과(041-730-4809)나 미산면사무소 (041-930-3741)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10

보령종친회장 염규현

의병장 염제보 독립운동가



의병장 염제보(廉在輔) (1868. 12. 24~1910. 6. 12)

염재보 선조님은 충경공중시조 염제신의 18세손으로 현보성종친회장 염태권(21세손)의 증조부이시다.

1868. 12. 24 전남 보성군 문덕면 양동리 내동 출신으로 보성에서 1908년 봄에 면암(勉庵)최익현(崔益鉉)의 격고문(檄告文)을 근원에 돌려가며 포고하고 말하기를 “나는 성명을 노출하면 일을 해치게 되니 안규홍(安圭洪)은 나이는 어리고 문안(文眼)은 없지만 담력이 커서 장수로 삼을만하여 대장으로 추대하고 좌우포장(左右砲將), 부장(副將)이되었다. 3월에 거사하여 석호산(石虎山)과 동소산(桐巢山)에서 두 차례 호군(護軍)하고 일제에 아부하는 일진회원과 밀정을 제거하고 주민을 괴롭히는 부호들을 처단하기도 하였다.

당시의 전투일지를 요약

1908~1909년 전남 중부지역의 대표적 의병부대로 성장.

1908.3 파청전투는 보성의 파청(巴青)문덕 양가령이재 대원사 진산 원봉 복내막곡 복내장 전투에서 의병전쟁사상

기념비적인 전과를 세움.

1908.4.7 내가령치(內加領峙)
전투에서 일군4명 사살

1908.4.13 화순 동복면 운월
치 보군과 접전 큰 전과 올림
1908.7. 진산대첩(眞山大捷)
승리

1908.8. 원봉에 주둔한 일군
에게 기습공격으로 승리, 2
명 사살(일군 대장 와다나베
는 말을 타고 도주)

1908.9.13 외가령치에서 일군
현병과 교전 일군 사살

1908.11. 의병 100여명 거느
리고 배를 타고 고흥으로 들어가 현병청을 파괴하였다.

1909. 2 중흥 세무감독을 축
출하고 적과 써워 승리

1909.4. 복내에 진입 일군3명
통역관 사살

1909.4.20. 반곡에 습격 일군
히라이 대장 사살

1909.7.14 복내면 반곡작전에
서 외군 대파 다량의 무기노획
후 현병청을 습격. 적병사살

1909년 9월25일 개시된 이
른바 남한폭도 대토별작전
때 문덕면에서 의병장 안규
홍과 좌우의부장의 일인이
였던 손덕오, 정기찬과 함께
일군(日軍) 대위의 일대와 광
주서(光州署) 순사들에 의해
채포 되었다.

그 후 광주 감옥에 수감되
었다가 대구 감옥에 이감되
어 옥리(獄吏)의 악형(惡刑)
을 받고 1910년 6월12일 순
국 하였으니 그 때 그의 나
이 43세였다. 정부에서는 그
의 공을 기리어 1977년 건국
포장(建國褒章)을 추서하고
1990년 건국훈장(建國勳章)
애국장(愛國章)이 추서되고
독립장(獨立章)이 수여되었
다. 보성군 문덕면 양동리 내
동에 공의 사적비가 세워져
있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담산
실기(안규홍), 호남절의사(김
정삼), 문덕면지, 보성인물사

대동보 책자족보 편집을 마치고

1986년 丙寅譜이후 32년만에 2018년 戊戌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족보를 처음 시작한지 어언 13년이 흘렀고 총회의 의결로 수단을 시작한지 4년 여 만에 지난 7월로 수단 접수를 마감하고 편집도 완료되어 이 회보를 받아보시는 10월경이면 대동보를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종회 廉文圭회장님의 지휘 아래 전 임원들이 수단요원이 되어 돌려한 결과 이제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전국의 지역 종친회 회장님과 임원님들 수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심심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인원에 훨씬 못 미치는 저조한 일가가 참여하였지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현 사회의 흐름으로 봅니다.

대동보의 근간은 丙寅譜를 토대로 하였습니다. 丙寅譜

는 수작업으로 만들어져 두 곳에 수록된 일기들이 있었는데 컴퓨터 작업으로 찾아내어 바로 잡았고, 出系와 양자 들어간 부분에서 누락 또는 오류가 많은데 상당부분 시정하였습니다. 묘소와 경력 란의 한자 중 한글로 기록하여도 무방한 경우는 모두 한글화 하였습니다. 글자 크기는 좀 더 큰 활자로 하였고, 용지는 고급화 하였습니다.

색인부가 丙寅譜에서는 계보 형태로 되어있어 찾는데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가나다 순으로 편집하여 누구나 찾아보기 쉽도록 하였고, 6권의 뒤에 편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족보의 기록 형태에서 현대 사회의 흐름에 따라 좀 바꿔어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의 순서 기록에서 현재까지는 아들 먼저 기록하고 딸 순서로 기록하였지만 많은 일가들이 아들. 딸 구분 없이 출

생 순서로 기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전자족보의 특성상 출생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또 호적법이 폐지될 때 많은 부작용과 족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가 발생하리라 예전하였던 것이 현실로 닥친 것으로는, 결혼한 딸이 이혼 후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씨인 廉씨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염씨 족보에 등재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의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류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정확하게 작업하려고 노력하지만 사람의 손을 거치는 작업인 만큼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단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책자가 나와야 잘잘못이 판명되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전산화 시대인 만큼 이의 이점을 살려 전자족보를 먼저 구축하였기 때문에 수단 즉시 가족의 족보 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동안 공지글이나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요. ‘전자족보 자료가 그대로 책자에 수록되니 미리 오류를 찾아 시정하도록’ 수차례 걸쳐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동보 초안’을 몇 개월 간의 노력을 기울여 작성하여 미리 인터넷에 공지하여 누구나 오류, 누락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하면 모두 본인들의 불찰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자족보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우리 문중이 더욱더 발전하는데 토대가 되고, 전 일가들이 한데 뭉쳐 종사를 논의하는 마

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후계자를 양성하고, 온 일가들이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고급인력의 노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합당한 댓가도 지불되어야 하겠지요. 모두 합심하여 중지를 모아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가 중에서 재택근무로 이 시스템을 관리하실 수 있는 인재가 있으면 대종회로 연락하시어 우리 문중의 발전에 힘을 보태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음양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 10

대종회 총무이사 염명선



대종회 및 지방종친회 소식

총회결과 요약

■ 대종회 소식

1. 2018년도 정기총회

- 일 시 : 2018. 3. 10
- 장 소 : 서울사무소
- 참석인원 : 40명
- 토의사항 : 회보참고

2. 강화사단 시향

- 일 시 : 2018. 4. 15
- 장 소 : 강화도 사단 현지
- 참석인원 :

※ 현성금 총 24,850,000원중 기봉 전회장님 2천만원

- 세부내용 회보 참조

■ 지방종친회 소식

1. 음성종친회 회장 변경

전 회 장	신 임 회 장
염 태 구	염 종 달 010.2465.4131

- 신인종무 : 염종수 010.4301.1258

2. 순천 종친회 회장

전 회 장	신 임 회 장
염 천 수	염 영 호 010.8633.7481

1. 일 시 : 2018. 3. 10

2. 장 소 : 서울대종회 사무소

3. 참석인원 : 40명

4. 토의사항

1) 제 1호의안 2017년 예산결산 승인 안

– 원안대로 통과

2) 제 2호의안 2018년 예산 심의 안

3) 제 3호의안 전자족보 현황 및 대동보 발행보고(안)

4) 제 4호의안 대동보발행결의 (안)

3.4호 의안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지역총진회장의 책임하에
책자족보 소요파악 후 책자족보 편찬 결정(개인별로는 인터넷
으로 신청가능. 서울지역, 종친회 미결성 지역)

5) 제 5호의안 전자족보 관리자 선정 및 보수책정 (안)

→ 희망자 및 예산 문제로 처리 못함.

6) 제 6호의안 → 2018년도 회보발안(안) – 통과

7) 제 7호의안 → 강화사단 정비 계획(안) – 예산문제로 보류

8) 제 8호의안 기타안건

→ 영천사단 주차장 – 보류 (예산문제)

→ 뿌리공원 행사참여 – 회비지원 (년 200,000원)

→ 대종회 조직 문제 – 희망자 위주로 조직보강

→ 강화사단 주차장 실효지배 강화 – 계속 진행

(춘계시재일 4.15일(일요일)) 11시

3. 매현친목회(수도권)

전 회 장	신 임 회 장
염 동 렐(국회의원)	회장 : 염 동 삼
	부회장 : 염 응 철 변호사

4. 안양종친회장

전 회 장	신 임 회 장
염 재 흥	염 만 승

※ 대종회 상임위원회 구성 및 회의 문제

※ 영천. 임실의 시재 날자 동일 - 조정

- 임실종친회장 협의 예정

ioadmax 종합 인쇄기획
Total Printing Solution

복사 · 제본 · 봉투 · 명함 · 현수막 · 포스터
전단지, 실사출력, 카다로그, 리플렛 외 각종인쇄

염 태 훈

TEL : 031)215-0745 FAX : 031)215-074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211번길 3

坡州廉氏大宗會報

題字 써 주신분



雪齋 廉圭弘

광주광역시동구산수동510-16번지
전화 : (062)224-2669 · H.P : 010-6620-1626

제1호의안 2017년도 예산 결산 승인 안

■ 수입

과 목	금 액	내 용	단위:원
이 월 금	2,229,591	농협 355-0036-9146-13	
찬 조 금	4,100,000	회보참조	
강 화 현 성 금	3,700,000	회보참조	
예 탁 금 이 자	927,913	3/23 예탁금 204,000,000원	
회 보 발 행 자 금	770,000		
이 자	5,872	일반통장	
소 계	11,733,376		

※ 예탁금은 4개의 새마을금고에 예탁

■ 지출

과 목	금 액	내 용
축 의 금	100,000	부산회장 자녀 결혼
조 의 금 . 조 화	254,000	준태고문 부인상
강 화 제 수 비	2,034,500	7위 및 중식 포함
총 회 중 식 비	505,000	
제 초 제	68,200	인건비 제외
별 초 비	500,000	7위
조 의 금 . 조 화	500,000	준태고문
재 산 세	46,320	
	786,090	875,130원
	42,720	
향 . 촛 대	900,000	영천. 임실. 나주
세 금	860	일반통장
소 계	5,737,690	
통 장 이 월 금	5,995,686	
계	11,733,376	

◆ 기업은행 : 2016. 12. 26 잔액 : 1,533,021원
 2017. 12. 26 잔액 : 1,472,782원
 전화비 : 60,239원

강화현성금

순위	소 속	성 명	금 액	비 고
1	대 종 회	염문규	500,000	대 종 회 장
2	매 헌 회	염동렬	200,000	매 헌 회 장
3	안 동 종 친 회	염덕상	200,000	대 종 회 자 문
4	남 양 주 시	염규현	100,000	
5	남 양 주 시	염재호	200,000	
6	대 종 회	염상렬	100,000	대종회수석부회장
7	수 원 종 친 회	염상덕	200,000	수 원 문 화 원 장
8	광 주 종 문 회	염금섭	200,000	대 종 회 고 문
9	광 주 종 문 회		200,000	
10	광 주 종 문 회	염동연	100,000	광 주 회 장
11	수 원 종 친 회	염상복	500,000	수 원 회 장
12	서 울	염육철	50,000	대 종 회 이 사
13	도 창 종 친 회	염재선	300,000	대 종 회 자 문
14	안 양 문 중	염재홍	300,000	안 양 회 장
15	서 울	염태강	200,000	우리MG이사장
16	대 종 회	염기봉	20,000,000	대종회명예회장
17	인 천	염규양	100,000	독립n c 대 표
18	대 구 종 친 회		100,000	
19	대 구 종 친 회	염종우	100,000	대 종 회 자 문
20	대 구 종 친 회	염성해	100,000	대 구 회 장
21	대 전 한 밭 회	염승삼	200,000	한 밭 회 회 장
22	안 산	염인호	100,000	가 평 설 악
23	고 양	염문철	100,000	
24	서 울	염배식	50,000	대 종 회 이 사
25	수 원 북 석 공 파	염상천	100,000	도 유 사
26	전 주 종 친 회	염동운	100,000	전주회장 염동호
27	대 종 회	염철용	150,000	대종회 대 의원
28	보 성 종 친 회	염동삼	100,000	대 종 회 자 문
29	부 산 종 친 회		100,000	

제2호의안 2018년도 예산 결산 심의안

■ 수입

과 목	금 액	내 용
이 월 금	5,995,686	농협(2017.12.24.)
이 월 금	1,472,782	우리은행. 서울사무소전화비
찬 조 금	4,000,000	
강 화 헌 성 금	4,000,000	
회 보 발 행 광 고 비	3,300,000	순수광고비로 제작
예 탁 금 이 자	1,000,000	
계	19,768,468	

※ 찬조금 ?

■ 지출

과 목	금 액	내 용
회 의 비	1,500,000	대종회총회중식 및 족보발행회의
강 화 제 수 비	2,500,000	
재 산 세	900,000	강화영천
잡 초 제 살 포	350,000	인건비 및 제조제
별 초 비	700,000	7위
전 화 비	100,000	서울사무소
회 보 발 행	3,000,000	
경 조 비	800,000	
향 촛 대	1,200,000	영천.임실.나주.수현사
뿌 리 공 원 회 비	200,000	
우 편 비	300,000	
소 계	11,550,000	
여 비 비	8,218,468	
계	19,768,468	

30	부 산 종 친 회	염 현 식	100,000	부 산 종 회 장
	계		24,850,000	

★ 순위 2, 26, 27, 28, 29, 30 은 계좌입금 ★기봉명예회장님은 묘역 정화를 당부하셨습니다.

찬조금(발전기금)

순위	소 속	성 명	금 액	비 고
1	시 흥 도 창	염 재 선	200,000	도 찬 종 친 회
2	대 구 종 친 회	염 성 해	500,000	대 구 종 친 회 장
3	광 주 종 친 회	염 금 섭	500,000	대 종 회 고 문
4	광 주 종 친 회	염 흥 섭	1,000,000	대 종 회 고 문
5	임 실 종 친 회	염 삼 섭	1,000,000	임 실 종 친 회 장
6	춘 천 종 친 회	염 기 원	100,000	대 종 회 자 문
7	광 주 종 친 회	염 규 정	100,000	대 종 회 자 문
8	대 전 종 친 회	염 영 록	100,000	대 종 회 자 문
	계		3,500,000	

★ 대종회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수비 결산

2018. 4. 15

참석인원 : 80명

순위	구입처	내용	금액	비고
1	부평전집	육개장국80인외 재수	565,000	전자결제
2	농협하나로마트	산자 外	310,770	
3	농협하나로마트	배추김치. 열무김치 각5kg	45,800	
4	굿모닝마트	돼지고기 外	313,780	
5	농수산물도매시장	수박 7개 外	174,000	
6	병천닭집	7마리	52,500	
7	시장정육점	소고기 (국)	30,000	
8	짱구네	보리굴비 外 7접시	140,000	
9	민속떡집	밥120명분 떡	200,000	
10	알바 5명		250,000	
11	봉고차렌트	1대	50,000	
12	초청장	205매	67,650	
13	기타		63,000	대봉
	계		2,262,500	

**파주염씨 전자족보를
운영하고 관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투잡으로 하실 분 환영)

1. 자격 : 파주염씨 일가문(역사적 조예)

2. 능력 : 다루어야 할 프로그램들

가. 사용한글 – utf-8

나. PHP 5.2 버전

다. Mysql – 5.1 버전

라. Html

마. High-Logic FontCreator – 한문 글자 폰트 제작

2018년 各 地域 享祀日(안내)

명칭	일자(음)	지역	신위	행사주관
盤溪影堂 (반계영당)	3월31일 土 (2/15)	경남. 함양	충경공	거창회장 염재욱 010.3883.1159
忠敬書院 (충경서원)	4월20일 金 (3/5)	전남. 나주	충경, 국파, 청강 15위	나주 유림
龍江祠 (용강사)	4월25일 水 (3/10)	충북. 옥천	충경공 外 7위	옹호종친회 총무 염대성 010.5406.2753
龜淵祠 (구연사)	4월30일 月 (3/15)	충북. 청도	충경 국파공 5위	
淸溪影堂 (청계영당)	4월30일 月 (3/15)	전남 보성	충경 국파공 5위	보성 종친회장 염동만 061.852.1055
孝坪祠 (효평사)	4월1일 日 (2/16)	대전. 대덕	충경, 국파 청강공	효평종친회총무 염윤수 010.4603.1135
柳川祠 (유천사)	5월4일 金 (3/19)	전남 화순	퇴은당 4위	화순종친회장 염일중 010.4600.3838
江華사단 (강화시재)	4월 15일 日 (2/30)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충경공 外 3위	대종회 010.7731.9788
水鉉祠 (수현사)	10월12일 金 (9/4)	충남 보령 미산	충경 국파공	보령종친 회장 염규현 02.362.7407 총무 염인선 010.2852.8267
永川사단 (영천시재)	11월10일 土 (10/3)	경북 영천	재상공 국파공	부산종친회 회장 염현식 010.3585.9999
敬思濟 (경사재)	11월10일 土 (10/3)	임실. 신평	동정공 外 40위	임실종친 회장 염삼섭 010.4783.7294
蘿州사단 (나주시재)	11월12일 月 (10/5)	전남 나주	충경공 外 7위	광주종친 회장 염동련 010.3615.6638

바. Editplus

사. Adobe Acrobat – 편집 가능한 것

아. 테크노트 7.5 버전 게시판 연동

자. 기타

※ 배우면서 할 수 있슴(인수인계 시)

3. 보수 : 2019년도 최종회 총회 토의

편·집·후·기

작년도 16호 발간에 이어 금년에 17호 속간을 축하드립니다. 지방종친회와 일가들의 원고제출등 두루 참여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호에는 (고)염영하교수의 범종연구업적 및 국립박물관소장 중시조초상화등 염문의 자랑거리를 실리게 됨은 매우 영광스런 일이라고 봅니다.

발간에 애써주신 염문규대종회장과 장소제공등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수원종친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파주염씨 종친들의 만사형통과 발전을 빕니다.

편집위원 : 염문규대종회장, 염상열부회장, 염상천사무국장

염은식 자문

忠義祠
(충의사)

11월25일 日
(10/18)

경남 통영

참의공 外
11위

부산종친 회장
010.3585.9999

※향사일 음력 기준으로 – 행사주관 종친회 확인 필요

부동산 보유현황

1) 강화사단(충경공, 국파공, 동정공, 청강공)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m2(평)	비 고
	240-6	대	899(292)	신도비
				주택44.8(14)1동
	264	대	1,679(508)	제각1동 38평
				1동 10평
	264-1	전	506(153)	외가 뒤
	262-9	전	2,919(883)	사단
신원면	262-1	전	906(274)	사단하단
냉정리	265-2	대	139(42)	2층집. 1등
	산70-44	임	1,983(600)	묘소하단
	산70-46	임	5,657(1,711)	묘소
	산70-62	임	1,427(432)	외가 옆
	소계		16,115(4,874)	

2) 영천사단(재산공, 국파공, 경은공)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평)	비고
영천시 금호읍 역남리	산19-1	임	16,685(5,047)	

3) 합 계 : 32,800m2 (9,922평)